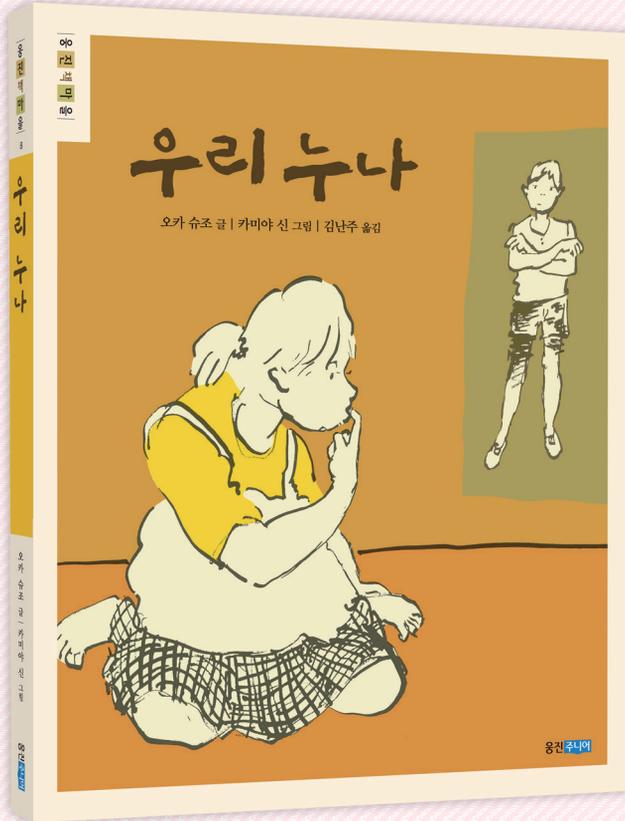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오카 슈조 글 | 카미야 신 그림 | 웅진주니어 | 178쪽

##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우리 누나>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우리 누나’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쓰라는 글짓기 숙제였다.

형제라고는 나하고 누나밖에 없으니, 누나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누나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누나가 있어서 좋았던 일은 한 번도 없다. 바보 멍청이에다 못생기고 똥보다. / 열일곱 살이

나 먹었는데 키는 5학년인 나 정도밖에 안 되고, 코는 납작하고 / 눈은 조그맣고, 빈말이라도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입술까지 두툼하고……, 말을 하자면 끝이 없다.

① ‘나’(쇼이치)의 ‘누나’는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인가요?

⇒

② ‘나’(쇼이치)가 바라본 ‘누나’의 외양은 어떤 모습인지 쓰세요.

⇒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하기야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산스럽기는 했지만.
- 우리는 매일 길을 바꿔 가면서 집요하게 찾아다녔다.
  - 아빠의 잔소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데, 엄마가 다시 끼어들어 아빠를 끊어 대니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 아키라가 토끼를 두고 돌아가자, 엄마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 “아직 여섯 시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인가 했네.” / 라면서 하품을 째 하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 나는 다리를 허우적거릴 줄밖에 모르니까 머리와 얼굴을 흠뻑 얻어맞았다.
- (나) · 아키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손에 들었던 목걸이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 ㉠      으로 가게를 나갔다.
- 나는 ㉡      웃으면서, 열심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엄마의 기분을 풀어 주려고 했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 ② 달갑지 아니하거나 못마땅하여 시들하다.
  - ③ 손발 따위를 자꾸 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다.
  - ④ 남의 감정, 기분 따위를 상하게 하거나 자극하다.
  - ⑤ 보기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한 데가 있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며 급히 걷는 걸음.
  - ㉡ 사람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싱겁고 실속이 없는 모양.

##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왜냐하면 누나는 아주 신중하다고 할까, 겁이 많다고 할까, 만에 하나라도 모험에 도전할 ( )이 아니고, 더구나 한번 기억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 성격이니까.

· 가족들의 식사 값을 치르는 ( )를 누나에게 준 것이다.

· 과연 내 ( )는 적중했다.

·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 )에 종이를 붙인 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 코우타와 츠요시의 말에 (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 3학년인 여동생은 ㉠ 습자 학원에 다닌다. 성적도 좋아서 오늘 같은 종업식 날, 깡총거리며 교문을 나서는 ㉡ 부류이다.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베니어 : 얇게 썬 널빤지.
- ② 영예 : 좋은 명성이나 명예.
- ③ 일리 :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 ④ 추리 :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함.
- ⑤ 체질 :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글씨 쓰기를 배워 익힘. 특히 붓글씨를 연습하는 것을 이른다.
- ㉣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

## 우리 누나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게 된데?” / 나는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눈이 젖어 있었다. 고개 숙인 엄마의 어깨도 파르르 물결치고 있었다. / “왜 그러는데, 엄마?”

“어어, 이건 말이지.” / 하면서 아빠가 헛기침을 했다. / “이건, 히로 누나가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다.” / “히로, 그래서 우리들한테, 맛있는 거, 사 주려고, 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소리에 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 식사가 끝났다. 아빠는 누나에게 계산서와 봉투를 내밀었다.

“히로가 받은 월급이니까, 히로가 내려무나.”

가족들의 식사 값을 치르는 영예를 누나에게 준 것이다.

누나는 우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당황하여 아빠의 카디건 자락을 잡아당기며 껌속말을 하였다. / ㉠“아빠, 그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없이 내게 윈크만 슬쩍 보냈다.

나는 그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었다. / “늘 감사합니다. 오천이백 엔입니다.”

누나는 봉투를 들여다보면서 돈을 전부 꺼내, / “오이!” / 라며 힘차게 내밀었다.

그 손에는 1만 엔짜리 석 장이 쥐어져 있었다.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나) : 식사가 끝나고, 히로 누나는 가족들의 식사 값을 치르기 위해 계산대에서 봉투에 들어있던 돈을 전부 꺼내 힘차게 내밀었음



2) (나)에서 ‘나’(쇼이치)가 걱정하자, ‘아빠’가 ㉠처럼 행동한 이유를 쓰시오.

⇒

## 잇자국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녀석을 에워싸고 툭툭 쳤다. 시게루가 녀석의 발을 걸었다.

“바보!” / 이치로가 다리를 걸어챘다. / “이 자식!” / 시게루가 뺨을 때렸다. 나도 질세라 때렸다. 그런데도 녀석은 울지 않았다. 저항도 하지 않고 입술만 짹 깨물고 있었다. / 우리는 점점 대담하고 거칠어졌다. 시게루가 툭 하고 어깨를 치자 녀석이 꼴사납게 획 넘어졌다. 우리는 머리를 때리고 등을 걸어챘다. / 시게루가 녀석의 손등을 오른발로 짓밟았을 때였다. 녀석이 잡자기, 미친 사람처럼 눈앞에 있는 시게루의 발을 깨물었다. 그리고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를 깨물고 놓지 않았다.

(나) “그야 물론, 먼저 민 시게루가 잘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깨물 것까지야 없잖아요. 그것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이에요. 병원에 데리고 갔던 노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사냥개 같더라고.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몸은 그 꼴을 하고서 힘은 세 가지고. 하기가 바보라서 모르는 거겠죠. 그 정도 깨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시게루 충격받아서 지금 열까지 펄펄 끓고 있다고요. 화가 나고 분해서, 그놈이 눈앞에 있으면 그냥 콧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줌마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분통이 터진다는 투였다.

1) (가)에서 ‘시게루’와 ‘녀석’에게 있었던 일이다. 순서대로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                                       |
|---|---------------------------------------|
| ①   | ② 녀석은 울지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고 입술만 짹 깨물고 있었음 |
| ③ 시게루가 어깨를 치자 녀석이 획 넘어졌고, 녀석의 손등을 오른발로 짓밟았음 | ④                                     |

2) (나)에서 ‘아줌마’가 ‘녀석’을 가리키는 말을 쓰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을 쓰시오.

⇒

# 명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 번째 도화지에는 빨간 크레파스로 ‘히사에 언니 그림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다. / 다음 도화지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거울 속 여자 아이는, 두 볼이 붕긋 튀어나오도록 웃고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히사에 언니는 거울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울 속 히사에 언니와 늘 얘기를 합니다.’ / 세 번째 도화지는 전철과 여자 아이 그림이었다.

‘히사에 언니는 전철을 아주 좋아합니다.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나) 그날 밤, 엄마는 목욕탕에서 히사에의 몸에 나 있는 새로운 멍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 ‘히사에의 몸에 멍이 하나 생기는 날, 기미코의 몸에도 멍이 하나 생겼겠지. 기미코의 몸에서 멍이 사라지는 날, 히사에의 몸에서도 멍이 사라질 거야.’ /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 기미코가 놀러 왔다가 돌아갈 때, 현관까지 배웅을 한 엄마는 옆에서 서 있는 히사에의 손을 보고 흠칫 놀랐다. 나무 블록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미코가 “안녕”이라며 손을 흔들고 문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그 나무 블록은 히사에의 손 안에 있었다.

1) (가)에서 ‘기미코’의 도화지 그림에 나타난, ‘히사에’가 좋아하는 것을 쓰시오.

↳

2) (나)에서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엄마는 목욕탕에서 히사에의 몸에 나 있는 새로운 멍을 발견했지만, \_\_\_\_\_  
 \_\_\_\_\_  
 \_\_\_\_\_  
 \_\_\_\_\_



② 며칠이 지나 기미코가 놀러 왔다가 돌아갈 때, \_\_\_\_\_  
 \_\_\_\_\_  
 \_\_\_\_\_  
 \_\_\_\_\_

## 목걸이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키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손에 들었던 목걸이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중걸음으로 가게를 나갔다. / “우리한테 들켜서 안 샀을 거야.”

라고 코우타가 말했다. 츠요시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우리 반에 좋아하는 여자 애가 있나?” / “야……, 저런 장난감 같은 목걸이 받고 좋아할 여자 애가 어디 있니, 6학년이나 됐는데.” / 내가 말했다.

“야, 혹시 그거 아니냐. 요즘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들 있잖아. 그거야, 그거.”

(나) 이제 아셨겠지요. 아키라 군이 왜 여자 액세서리를 샀는지. 아키라 군은 어디를 가든 반드시 구미를 위해 선물을 사 왔습니다. / 구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싼 브로치나 반지라도, 손발을 바둥거리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구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키라 군에게도 호뭇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11월 언젠가부터 아키라 군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수학여행 갔을 때 샀다는 장난감 진주 목걸이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우리들은 목걸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말했다



(나)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구미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좋아했음

2) (나)에서 ‘아키라’가 ‘구미’의 선물을 더 이상 사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여 쓰시오.

⇨

## 귀뚜라미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토모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별일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혼자서 볼꽃놀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여기서 다카시하고…….” / 아줌마는 거기까지 말하고, 말을 삼켰다. 그리고 어른들 틈에 끼어 있는 나를 보았다.

“다카시나 요코나 오늘 밤에는 안 했어요!” /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다.

(나) “다카시도 요코도, 지금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야.” / “왜요?” / 라고 내가 물었다.

“이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우리 애가 불을 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냐!”

나는 아빠의 말투에 화가 치밀었다. / “그럼 토모 형이 한 게 되잖아요.”

“그럼 됐지. 다들 그 저능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냥 놔둬.”

“그래도 그렇지, 그럼 토모 형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건 오히려 나다.” / 아빠는 성가시다는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1) (가)에서 ‘아줌마’가 ‘토모’는 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근거를 쓰시오.

⇒

2) (나)에서 ‘아빠’는 ‘요코’가 불을 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

이름 :

💡 다음 <우리 누나>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쿠라 특수학교의 6학년 교실. 급식 시간이다.

젊은 미키 선생님이 손을 제대로 못 놀리는 나에게 밥을 먹여 주면서 말했다.

“이번 주 일요일, 미유키네 오빠 결혼식이라면서?” / 미유키는 입가에 온통 케첩이 묻은 얼굴을 들면서 히죽 웃었다. 입 끝에서 침이 줄줄 흘렀다. 미유키의 입이라니, 다무릴 줄을 모른다. / “미유키도 결혼식에 갈 거야?”

미유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바람에 미유키의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휠체어에 붙어 있는 테이블이 흔들렸다. / 미유키와 내 손발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일까. 뇌성마비의 특징이러는데, 정말 싫다.

(나) ‘미유키 바보!’ /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카하하하 하고 웃을 때가 아니라고. 나나 너나 온 친척들한테 창피거리라고 여겨지고 있던 말이야. 네가 결혼식에 가지 못한 것은, 그래서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마음 편히 웃고 있는 미유키가 짜증스럽고, 분하고, 슬프고, 불쌍하고……. / ‘미유키, 정신 차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1) (가)에서 ‘나’와 ‘미유키’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병명을 쓰시오.

⇨

2) (나)에서 ‘나’는 ‘미유키’에게 ‘친척들’한테 창피거리라고 여겨져서 결혼식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러한 ‘친척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 보시오.

⇨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18 evenly spaced lines that span the width of the page.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red lines.



## 정답과 해설

|     |   |
|-----|---|
| 3쪽  | <p>1) (예시답안)주인공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p> <p>2) 노란 옷과 멜빵이 달린 치마를 입고 머리를 묶은 여자가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입에 물고 앉아 있다. 이 모습을 문밖에서 남자아이가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p> <p>3) ① 열일곱 살이고,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br/>         ② 키는 5학년인 '나' 정도밖에 안 되고, 코는 납작하고, 눈은 조그맣고, 게다가 입술까지 두툼하다.</p> |
| 4쪽  | <p>1) ⑤, ①, ④, ②, ③                      2) ㉠ : 종종걸음, ㉡ : 해실해실</p>  |
| 5쪽  | <p>1) ⑤, ②, ④, ①, ③                      2) ㉠ : ㉡, ㉢ : ㉣</p>  |
| 6쪽  | <p>1) (가) : 히로 누나가 일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우리들한테 맛있는 것을 사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아빠와 엄마는 감동했음</p> <p>2) 히로 누나의 봉투에 1만 엔짜리 석 장을 넣어 놓았기 때문이다.</p>   |
| 7쪽  | <p>1) ① 시게루가 녀석의 발을 걸었고, 뺨을 때렸음<br/>         ④ 시녀석이 시게루의 발을 깨물었고, 반바지 아래의 허벅지를 깨물고 놓지 않았음</p> <p>2) 사랑개, 바보, 그놈 / 녀석을 비하하고 미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p>  |
| 8쪽  | <p>1) 거울, 전철</p> <p>2) ① 히사에와 기미코의 몸에서 멍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음<br/>         ② 엄마는 히사에의 손에 나무 블록이 쥐어져 있었던 것을 보고 흠칫 놀랐음</p>   |
| 9쪽  | <p>1) (가) : 아키라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손에 들었던 목걸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가게를 나갔고, (나) : 아키라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구미를 위해 여자 액세서리 선물을 사 왔고,</p> <p>2) 구미가 심하게 앓다가 세상을 떠나서</p>   |
| 10쪽 | <p>1) 지금까지 혼자서 불꽃놀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여기서 '나'(다카시)하고 했었음</p> <p>2) (예시답안)요코가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것을 아빠가 숨기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토모를 능가이라고 부르고, 토모 형이 불을 낸 것이 되어 불쌍하다는 '나'의 말에 아빠 자신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p>   |
| 11쪽 | <p>1)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고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p> <p>2) (예시답안)뇌가 손상되어 운동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나'와 미유키를 친척들이 창피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친척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장애를 가진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p>   |



# 응진주니어

값 7,500원



ISBN 978-89-01-04609-9  
ISBN 978-89-01-03863-6 (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